

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주색 갈대의 일종인 부처꽃으로 연간 355억달러가 소요되며 쏘는 개미(fire ant)등 곤충과 질병을 유발하는 유기물 역시 각각 200억달러와 65억달러의 부담을 주고 있는 등 “일부 외래종만으로도 막대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6천300만 마리에 달하는 집 고양이와 3천만 마리로 추산되는 야생 고양이들이 해마다 기생충의 천적인 새 2억마리를 해치우고 있고 집에서 기르는 개마저도 생태계 교란의 주인공이라고 지적했다.

기생충의 천적인 새를 마리당 30달러로 계산할 때 고양이들이 연간 60억달러를 먹여치우는 셈이다.

매미 나방과 느릅나무 질병, 쏘는 개미도 생태계를 해치는 주요 유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농업이 주요 산업인 주의 경우 외래 동식물의 폐해는 한층 심각하다는 것.

방목장에서 자라는 일년생 잡초인 참새귀리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산불의 요인도 되고 있다. 황소 개구리 역시 토착종인 거북류를 해치고 있으며 녹색게는 대합조개들과 굴 등에 위협이 되고 있다.

피멘텔 연구원은 지난 1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미국 과학진흥협회 연례 회의에서도 “외래종 유기물을 원래 서식지로 돌려 보내기는 늦었다”면서 “생태계의 관리를 통해 자연이 더 이상 손상되는 것만 막아도 다행일 것”이라고 말하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생태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남극 대륙빙 용해 직전상태에 있다”

남극대륙 서부의 거대한 대륙빙(빙산)이 용해 직전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100년 이내에 해수면이 6m나 상승할 것이라고 저명한 극지질학자가 지난 1월 27일 경고했다.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빅토리아대학의 피터 버렛 박사는 이날 남극대륙에서 열리고 있는 남극조약 당사국 회의에 참가중인 24개국 정치인들에게 자신을 비롯한 극지 과학자들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남극 대륙 서부의 대륙빙이 바야흐로 녹아내리려 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피터 박사는 인류가 양산하고 있는 배출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극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배 크다고 지적한 뒤 “중요한 것은 변화의 규모가 아닌 속도이며 확실한 것이 드러나서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지난 40년간 남극대륙의 기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왔다고 밝히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천년간 빙산과 해수면, 기온 모두 안정적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런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극대륙 서부의 대륙빙은 해수면에서 6m 높이의 크기로 로스해와 마리 버드 랜드, 남극반도, 웨들해 등의 폭 넓은 지역에 걸쳐 있다.

남극대륙 전체에 산재한 대륙빙이 모두 녹아내릴 경우 해수면은 총 60m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시 대기 오염 세계 최악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시는 시당국의 경고와 오염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됐으며 1천 300만 시민들은 현재 호흡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공식 보고 들에 따르면 지난해 스모그가 265일이나 끼었으며 3일중 2일은 햇빛이 거의 없는 가운데 안개로 날

씨가 매우 어두웠다.

자외선, 자동차 배기, 산업가스 등이 혼합된 화학 구름인 스모그는 중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고 베이징의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한 지난 80년대 초 이후 계속 악화되었다.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왕 실팡 국가환경보호국 부국장의 말을 인용, “사람들이 베이징 상공에서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데 대해 불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심각한 대기오염은 주로 베이징 시민들이 난방용으로 매년 1천800만톤의 석탄을 태우고 140만대의 자동차가 납과 일산화탄소, 산화질소 등이 포함된 배기가스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서방 자동차제조회사의 직원은 “공해방지 기준에서 볼 때 베이징시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지난 70년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들과 비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아마존에도 '미나타' 경보

일본에서 발생한 수은중독질병인 미나마타병이 열대 다우림지역인 아마존 오지 어촌에서도 발생, 과학자들이 '미나타' 경보를 경고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지난 2월 3일 보도했다.

BBC방송은 과학전문잡지 뉴사이언티스트 최신호를 인용, 아마존 어촌에서 잡은 고기를 먹은 주민들이 미나마타병의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지난 1950년대 일본 미나마타에서 수은에 중독된 생선을 먹고 1천500명의 환자가 발생해 '미나타'라는 이름을 얻은 이 병이 미나마타 밖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환자들은 중금속공장에서 방출한 수은에 오염된 해안의 생선을 먹은 후 독성 성분인 메틸수은에 감염, 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미나타병 전문가인 하라다 마추미 구마모토대학 교

수는 아마존 산 루이스도 타파이 주변에 사는 주민 50명의 인체에서 고농도의 메틸수은을 검출했으며, 이중 3명으로부터 발작적인 떨림 등 미나마타병 특유의 신경이상 증세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퀘백대 연구팀도 아마존 주민들에게서 자율신경의 이상, 시각장애, 근육의 약화 등 신경계 이상증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마존지역에서 잡힌 생선에서 검출된 메틸수은이 브라질 금광에서 흘러나온 수은 때문인지, 삼림벌채로 인한 토양성분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캐나다 과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황허강 오염 심각 식수사용 부적합

중국 황허(黃河)강이 하류인 산둥(山東)지방에서 수질이 크게 오염돼 주민들이 저수지의 물만을 식수로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된 실정이라고 소식통들이 지난 2월 9일 밝혔다.

산둥 황허강 수자원보호국의 천 진하오 국장은 “오염이 전례없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일부 폐수처리시설이 폐쇄됐다”고 시인했다.

중국 언론은 지금까지 저수지에 충분한 물이 저장돼 있다면서 폐수 과다 방출로 인한 식수오염 공포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조심해왔다.

그러나 황허강 폐수 처리장 관리들이나 천 국장은 저수지의 물이 얼마나 지탱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최근 강상류의 지류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 들어가 황허강 전장 5천464km중 1천km 이상은 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